

예수님을 보여 주지 않는 이유와 통하는 것의 의미

작성일 : 2010. 2. 3. 오후 10:30

작성자 : 오나래 (강남제일교회)

(2010년 2월 3일 수요일예배 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저의 영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받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섭리사야.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 신랑이로다.

너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사랑 변하지 않게

나와 끌어안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기도하여라.

기도하여서 너희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라.

나 예수 섭리사에게

‘하여라.’ 혹은 ‘하지 말라.’ 말하였다.

모두 너희의 마음이, 영혼이 나에게로만 오도록

나 외에 세상과 사탄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한 것이니라.

개미가 길을 모르고 걸어가는 것을

사람이 손으로 막고 막으며

원하는 지점까지 오도록 하는 것과 같이

너희를 그리 이끌어 왔노라.

허나 앞으로의 환란과 어지러움에
내 말에도 막아지지 않는 영혼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기에
너희 스스로의 마음을 이제 막으라 하는 것이니라.
너희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내게 오도록 하라.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시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면 갈망하고 소원한다.
그러다 그 물건을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되면
길게 5일, 7일 정도 후에는
그 물건을 보아도 시큰둥해 한다.
여자들은 가방, 보석, 옷을 너무 가지고 싶어 하지.
명품가방, 보석, 비싼 옷들을.

그러다 막상 가지게 되면
7일 후에는 옷장 구석에 있게 되고,
가방도 방구석에 두고, 보석도 유행 지났다고 안하고 다닌다.
남자들은 비싼 자동차, 명품 시계를 가지고 싶어 하지.
막상 가지게 되면 길면 10일 후에는 시큰둥해 한다.
더 좋은 차가 나왔다고 떠들고
시계도 약 떨어질 때 되면
유행 지났다고 새 시계를 사고 싶어 한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이니라.
보여주면 안주하게 된다.
확실한 예를 들어줄게.
선생 곁에 있던 자들이 며칠이나 행복해하고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평균 7일이다.
7일 지나면 안주한다.
선생 곁에 있던 자들이 선생 떠난 자 많도다.
왜 그런 것이겠느냐.

가치성이니라. 가치성을 잃어버린 것이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고 만지게 되면 가치를 잃어버린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비싼 자동차도 다 그러한 이치니라.
나의 계시를 받는 자들도
나의 모습을 보는 자들도
나의 환상을 보는 자들도
모두 처음 보고 들을 때 뜨끔해했던 것처럼
늘 뜨끔하게, 감사하게 받는 자 몇 없노라.

가치성 회복하여라.
그러니 내가 나타나고 싶겠느냐.
아버지가 성령어머니가 나타나고 싶겠느냐.
너희를 너무 잘 아는 삼위 일체되는
하나님, 성령님과 내가 그러하겠느냐.
모두 너희를 위함이요.
너희를 잃고 싶지 않은 나 예수의 사랑이니라.
그러니 들리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거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라.

사랑이 목적이니라.

사랑하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봐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들어야지 통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너무 많도다.
아니니라.

사랑하면 내 사랑 느끼며

나와 생활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통한 것이니라.
통하였노라.

너희와 나와 사랑으로 통해야 진정 통하는 것이니라.

계시를 받아도 환상을 보아도 나의 모습을 보아도
사랑으로 통하지 아니하면
진정 통했다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사랑. 사랑.

도대체 더 이상의 근본을 어찌 말해주리.

더 이상의 핵심과 영계 비밀에 대해 무얼 말해주리.

사랑.

오직 사랑이니라.

나 예수 내 사랑 안에 숨 쉬는 섭리 신부들에게.